

주 장 사 항

본인은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운전자의 안전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내에 차량의 소용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회전선에 가까운 차로 상에서 안전운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대차량의 위치는 전혀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제 양향을 보더라도 좌우 측 회전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차량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차로로 정상 주행하였으며, 우측 후방에서 상대측의 운전부주위에 따른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현장에서 여씨에 여운하는 말을 하며, 본인이 피커라며 병원에 차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저는 도로상에서 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후방까지 주시하기엔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위험한 차량을 제가 주시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불 계량력으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상대차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각지대에서 오는 차량을 피할 수 없었을 뿐더러, 상대차가 제 앞부분에서 차로를 변경하려 했다면 저는 양향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고지점 전미 무단횡단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운전자는 여러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고, 주시하며 운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며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정리를 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지나간 후에 재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전함에 있어서 최대한 인원은 중시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방에서 보이려도 않는 상대차량에 대해 제가 방어운전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상대측의 일방적일도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정각했거나, 한들름 풀렸을 것이지만 제치므로 운행중인 상황에서 상대차량이 보이지도 않는 사각지대에서 제 차를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제 차 조차식 뒷부분을 충격한 상대측의 일방적일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22

홍지혜